

현장시선



임도식 LH제주지역본부장

도민과 함께한 제주도 개발 50년

LH제주지역본부장 부임 2년차에 접어들어 첫 해에는 보이지 않던 제주만의 매력을 느끼게 돼 애착이 더욱 커졌다. 얼마 전 명예도민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주지역 공기업 수장으로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진 느낌이다.

년 역사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제주에서 LH가 최초로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2년 서귀포시 서호지구(98만4000㎡)이다. 1994년에는 제주도 지역 최초로 일도지구를 개발하고, 1998년에 제주 화북지구를 준공했다. 2000년 서부지역 제주연동지구를 준공하고, 2005년엔 제주노형지구를 준공했다. 동부지역에서는 북제주합덕을 2005년에 준공하고, 2011년 제주삼화지구를 준공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2014년 서귀포강정, 2015년 서귀포혁신도시를 준공했다.

이렇게 2015년까지 이어지던 택지개발사업은 서귀포혁신도시 준공 이후, 제주도라는 관광도시 내 대규모 개발에 대한 우려 등으로 10여년간 주춤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

게도 이 기간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동산은 폭등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중산간과 도심난개발 등 제주의 환경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긴 공백 이후 우리 공사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제주도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제주 최초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국토부가 제주화북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고, 우리 공사는 다시 한번 도내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 제주 동부공원, 화북2지구는 연복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된 40만평, 7350호 규모로 개발돼 향후 제주도의 집값 안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LH 제주지역본부장으로서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는 LH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개발로 인한 이익이나 개발사업 선점이 아니라,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공공주택을 건설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LH가 도민에게 그동안 제주도내 개발이의 만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주도가 직면한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생각한다.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제주지역본부가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사설

삶이 나아지도록 '살맛나는 제주' 바란다

제주경제가 녹록지 않다. 소득은 시원치 않은데 물가는 크게 치솟으면서 제주도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제주경제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다. 1차산업을 비롯 관광산업과 건설업 등 제주의 핵심 산업들이 하나같이 맥을 못추고 있다. 제주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도민들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라는 기대도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한 목소리로 주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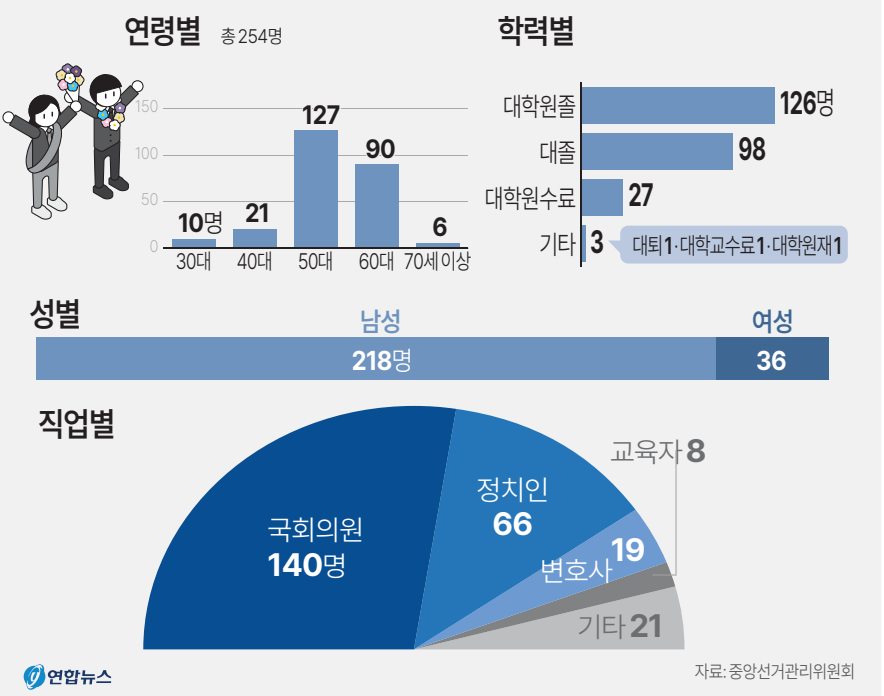
본보에 전해진 제주도내 각계각층의 소망도 '먹고 사는' 문제로 직결된다. 농업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지금의 농업·농촌은 점차 폐쇄적이고 있어 농가소득 보장 등을 촉구했다(문병철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 최근 중소기업인들은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제주관광이 힘들다. 제주관광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요청했다(제주여행업계 양영석씨). 취업 기회가 부족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불안은 더욱 커진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제주대 언론홍보학과 한승욱).

결국 도민들이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것도 민생문제로 모아진다. 당선인들도 민생 공약들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경제 살리는 일자리 예산 복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1차산업 지원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상태다. 도내 언론사에서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민생 불안'을 가장 큰 이슈로 꼽았다. 최근 제주도정도 민생 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냈다. 제주가 더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는데 당선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래픽 뉴스

4.10 총선 지역구 당선인 분석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열린마당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 안전 먼저 챙기시다



이지한 제주동부서 아라파출소

리 채취객들은 고사리를 꺾기 위해 바닷만 보며 들뜬과 숲을 돌아다니다가 되고, 해당 장소에는 기준점이나 이정표가 없어 고사리를 꺾다 본인도 모르게 길을 잃는 경우가 속출한다.

매해 봄철만 되면 중산간 도로 갖길에 차가 빼곡히 주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다.

비 온 뒤 잘 자라는 고사리의 특성상, 제주도에서는 '고사리 장마'라는 말도 있으며, 특히 제주 고사리는 맛과 영양이 좋아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고사리 채취 관광 상품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고사리 채취 철에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길 잃음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고사

리 채취객들도 고사리를 꺾기 위해 바닷만 보며 들뜬과 숲을 돌아다니다가 되고, 해당 장소에는 기준점이나 이정표가 없어 고사리를 꺾다 본인도 모르게 길을 잃는 경우가 속출한다.

이러한 길 잃음 안전사고는 고사리철인 4~5월에 집중되는데 전체 길 잃음 안전사고의 약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이며, 종종 '고사리 채취 중 길을 잃었다.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도 들어와 위치 추적을 해 신고자를 찾기도 한다.

우리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가시적 순찰과 주민 접촉을 통해 고사리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사리 채취객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고사리 채취 전 안전수칙을 잘 살펴, 안전사고 없는 고사리 수확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제주의 대표 신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고

김형훈 어머니 군위오씨 문재(향년 84세)께서 서기 2024년 4월 11일 09시 27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4년 4월 12일(금요일)
 ▶발인일시: 2024년 4월 13일(토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

남편 김순언
 아들 김형훈 며느리 고선영
 딸 김은영 사위 유희연
 은정 고경원
 미정 김대신
 민정

※ 연락처: 김형훈 010-2494-3678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1차)

당 회사는 2024년 3월 29일 사원전원서면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사오니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제출일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유한회사 산방모래산업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40, 2층
 청산인 지창식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석주개발

방수전문건설업

☎ 782-3644
 010-4690-3636

척추 허리 골반

중풍마비(실어증), 어깨, 영치, 다리통증, O.X다리, 키크기, 성장 교정

1회 체험으로 대만족

Snpe, 활력도비술, 정통고려활법전승계승자

대한활법연맹
 010-7121-8275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리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중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회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